

## 20대 여성의 미용성형 경험과 수용성

### Plastic surgery experience and addiction of female college students

김 영 아\*, 정 향 인\*\*, 서 윤 임\*\*\*  
제주대학교\*, 전남대학교\*\*, 국립기상과학원\*\*\*

Kim Young A\*, Cho Chung Hayng-In\*\*,  
Seo Yum Am\*\*\*  
Jeju National Univ.\*, Chonnam National Univ.\*\*,  
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.\*\*\*

#### 요약

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미용성형 경험과 미용성형수술 수용성(ACS)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. 무작위 표집한 20대 여성 33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에 자료 수집을 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, t-test, crosstabs, chi-square test, ANOVA, correlation, binary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. 연구결과, 97.9%는 미용성형의 부작용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었고, 정보원으로는 인터넷이 57.3%로 가장 많았다. 124명(37.6%)은 최소 1회 이상의 미용성형 경험이 있었고, 최초 성형을 한 연령은 21.81(±2.83)세였다. ACS는 외모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( $r=-0.18$ ,  $p=.001$ )가 있었다. 미용성형 경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, ACS와 BMI였고, 변수들의 설명력은 28.9%였다. 연령이 1살이 높아질수록 미용성형 경험이 있을 확률이 1.17배 높아지고( $OR=1.17$ ,  $p=.002$ ), ACS가 1점이 높아질수록 미용성형 경험이 있을 확률이 1.06배 높았으며( $OR=1.06$ ,  $p<.001$ ), BMI 점수가 1점이 높아질수록 미용성형의 경험이 있을 확률이 0.84배 낮아졌다( $OR=0.84$ ,  $p<.001$ ). 대상자의 심신건강을 위한 관련 정책을 위하여 점차 증가하는 20대 여성의 미용성형수술과 관련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조사 등 후속연구를 제안한다.

## I. 서론

오늘날 미용성형은 일상이나 대중매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흔해졌다. 국내 조사에 의하면 여성이 '결혼'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1994년 38%에서 2015년 66%로 증가하였다. 특히, 20대 여성의 성형수술 경험률은 1994년 5%에서 2015년 31%로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성형수술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 가운데 27%는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[1].

높은 미용성형수술 수용성(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[ACS])은 미용성형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데,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ACS에는 여성, 학년, 미용성형 경험,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진 바 있다[2,3].

미용성형의 증가에 따라 부작용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, 미용성형을 가장 많이 추구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ACS, 자아존중감 등 미용성형 관련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.

## II. 연구방법

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미용성형 경험과 ACS를 포함한 미용성형 관련 특성을 비교,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

사연구로 총 33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하였다. SPSS 19.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, 서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.

## III. 연구결과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25.02세로 평균 BMI는 21.37로, 미혼이 293명(88.8%), 기혼이 37명(11.2%), 학생이 83명(25.2%), 학생이 아닌 자가 247명(74.8%), 가정의 경제수준은 '상' 15명, '중' 238명, '하'가 77명이었다.

미용성형 관련 특성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보 여부가 '있다' 323명(97.9%), '없다'가 7명(2.1%),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경로는 '인터넷' 185명, 'TV/신문잡지' 97명, '친구나 가족'이 38명, '의사'가 3명이었다. 미용성형을 이전에 경험한 대상자는 124명(37.6%)으로, 최초 성형을 한 연령은 21.81(±2.83)세였다. 외과적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는 124명 중 95명으로 '안검 미용성형'이 86명(90.5%)으로 가장 많았고, 비외과적인 미용성형을 경험한 대상자는 104명으로 '보톡스 주사'가 59명(56.7%)으로 가장 많았다 [표 1].

대상자의 성형경험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평균 연령 ( $t=3.81$ ,  $p<.001$ ), 평균 BMI ( $t=-3.62$ ,  $p<.001$ ), 혼인 여부 ( $\chi^2=4.82$ ,  $p=.028$ ), 학생 여부

( $\chi^2=10.19$ ,  $p=.001$ ), 추후 고려하는 미용성형 여부 ( $\chi^2=286.93$ ,  $p<.001$ ), 그리고 ACS ( $t=7.80$ ,  $p<.001$ )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.

표 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미용성형 관련 특성 (N=330)

변수	n (%) or M±SD
연령	25.02±2.64
체질량지수	21.37±3.51
결혼 여부	예 37 (11.2)
	아니오 293 (88.8)
학생 여부	예 83 (25.2)
	아니오 247 (74.8)
인지한 경제적 수준	상 15 (4.6)
	중 238 (72.1)
	하 77 (23.3)
부작용 정보	예 323 (97.9)
	인터넷 185 (57.3)
	TV, 신문, 잡지 97 (30.0)
	친구 또는 가족 38 (11.8)
	의사 3 (0.9)
	아니오 7 (2.1)
미용성형 경험	예 124 (37.6)
	첫 경험 연령 21.81±2.83 (16~29)
	외과적 시술* 95 (76.6)
	비외과적 시술* 104 (83.9)
미용성형 고려	아니오 206 (62.4)
	예 195 (59.1)
	외과적 시술* 171 (87.7)
	비외과적 시술* 192 (98.5)
아니오 135 (40.9)	
미용성형수술 수용성 (ACS)	66.52±16.67
외모만족도	122.21±21.31
자아존중감	29.91±4.83

\*중복응답

#### IV. 결론

외모에 대한 기준은 시대와 나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65% 이상에서 취직과 결혼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사람의 외모로 많이 평가되는 개인의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역할을 위한 수단이 됨을 알 수 있다. 또한 본 연구의 외모만족도는 ACS와 음의 관계를, 자아존중감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,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ACS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를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성형수술에 대한 고려가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. 따라서 주관적이고 서구미인으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미에 대한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외모

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 상당히 제한적인 만큼 자신의 신체와 외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, 내적 아름다움을 보다 성숙시키면서 동시에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.

#### ■ 참고 문헌 ■

- [1] Gallup Korea, "Appearance and recognition of cosmetic surgery - 1994/2004/2015 compare." Seoul: Gallup Korea, 2015, Retrieved July 17, 2017, from <http://www.gallup.co.kr/gallupdb/reportContent.asp?seqNo=656>
- [2] Kim, Y. A, Chae, D. H., & Kim, H. L. "Factors affecting acceptance of cosmetic surger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,"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, Vol. 17, No. 1, pp. 455-464, 2017.
- [3] Kim, Y. A. and Chung, H. I. "Factors affecting plastic surgery addiction tendency among undergraduate women,"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, Vol. 12, No. 12, pp. 621-631, 2014.